

정부 · 기관소식

농림수산식품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현장방역 가상훈련(CPX) 실시

농림수산식품부는 경북 영천시 가축시장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발생한 것을 가정하여 11월 20, 21일 양일간 발생지 초동방역, 전국적 가축이동 금지(Standstill; 48시간), 긴급예방접종 등 현장방역 가상훈련(CPX)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농림수산식품부, 전국 지자체 및 축산관련 단체에서는 지난 10월 4일부터 구제역·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 중에 있다.

이번 훈련은 초동방역 요령을 교육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거쳐 실시했던 종전과는 달리 예고 없이 실시한 것으로서, 실제상황을 방불케 하는 방식으로 지자체를 포함한 방역기관의 종합적인 대응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1차로 농림수산식품부 및 유관기관, 지자체, 관련단체·협회가 참여하는 종합훈련으로, ▲의심축 신고 접수에 따른 초동 대응 및 방역 준비 → ▲구제역 확진(SAT-1형 구제역 가상)에 따른 전국적 가축 이동금지 등 긴급대응 → ▲대책본부 및 긴급방역기구 가동 → ▲통제초소 및 축산차량 소독장소 설치 운영 → ▲살처분 및 사체 처리, 긴급 예방접종 및 소독 등 구제역 발생에서 처리까지 일련의

방역조치 사항을 점검했다.

(* 농림수산식품부가 구제역·AI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해 제정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및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전반을 현장훈련)

2차로 오는 12월 초에는 사전 예고없이 구제역과 AI 발생경험이 없는 1~2개 시·군을 선정, 직접 현장에 투입하는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만을 가동하여 현장방역 가상훈련을 추가로 실시함으로써 지자체의 초동방역 능력을 제고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훈련이 본격화된 11월 21일에는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방역현장에 도착하여 긴박감을 고조시켰으며,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김영석 영천시장과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 축산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 참석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현장훈련에 앞서 지난 6월 행안부 주관 하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구제역 발생 가상 상황을 부여해 전국적인 가상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간의 훈련결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를 표창하는 평가대회(12월초)를 개최할 계획이다. 11월 21일 현장방역 훈련을 주관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구제역·AI 예방 및 조기 퇴치를 위하여

철통같은 방역태세를 갖추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수산물부부는 이번 현장방역 가상훈련을 통해 지자체의 방역의식과 대응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겨울철 구제역 및 AI 발생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축산식품 유해잔류물질 분석능력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아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네덜란드 식품안전연구원(RIKILT)이 주관하는 국제 비교속련도시험에 참가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분석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식품안전연구원(RIKILT)은 유럽연합(EU)의 동물용 의약품 및 기타 유해잔류물질 분석에 대한 국제표준실험실로서, 매년 국제비교속련도시험 프로그램을 주관하며 세계 각국 정부 및 민간 실험실에서 참여한 분석 능력을 평가한다.

올해는 전체 38개 참가기관 중 분석시료에 잔류된 동물용의약품 5종을 모두 검출하고 잔류량을 정확하게 분석한 최상위 그룹은 서울지역본부(유해물질검사와)를 포함하여 3개 기관(실험실)이었다.

이번에 사용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LC-MS/MS)를 이용한 다계열 스크리닝법』은 동물의약품 7개 계열 약 70종 이상의 물질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시료(Blind sample) 중에 실제 잔류된 물질(Ceftiofur, Desfuroylceftiofur, Ivermectin, Sulfadiazine,

Tulathromycin)을 모두(100%) 정확하게(z-score 2 이하) 분석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는 축산식품 중 유해잔류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정밀검사 결과의 국제적인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국제비교속련도시험 프로그램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농업인단체와의 협력강화를 위한 초청 간담회 열어 현장과 소통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업·농촌 발전 및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국 농업인단체장 초청 간담회를 11월 20일 농진청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농업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47개 농업인단체장들을 대상으로 농업연구 성과 극대화, 기술 보급 선진화, 일자리 창출 및 농식품 사업 활성화 등 농촌진흥사업 활력화를 통해 FTA, 식량문제 등 어려운 농업여건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농업인단체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으며, 기획조정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소개와 함께 농촌진흥사업의 새로운 방향과 농업·농촌발전 방안에 대한 여러 농업인단체장들의 의견을 모아 앞으로의 정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농업인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농업·농촌 발전의 상생 파

트너로서 농업인단체와의 적극적인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축산과학원

사랑나눔 바자회 개최

지난 11월 1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사랑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원들이 기증한 의류, 가방, 신발, 책 등 각종 생활용품들을 비롯해 여직원회 주관으로 직접 만든 음식 등을 판매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신태철 운영지원과장은 “우리 사회에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번 바자회를 기획하게 됐다.”라며 “직원들이 이날 행사를 통해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직원들이 기증한 물품들로 진행되는 이번 바자회와 음식 판매 등을 통해 나온 수익금 전액은 연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해마다 불우이웃돕기 행사와 정기적으로 무료급식 봉사활동 등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청, 장년층 「건강생활을 위한 영양·식생활 실천 가이드」 e-book 제작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우리나라 성인

의 만성질환 유병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골고루 먹는 식습관만으로도 비만 및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사관리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 '01년~'08년까지 성인 6,640명 추적조사한 연구결과 골고루 먹는 식습관이 대사증후군 발생율을 낮춤('12.1.27. 식약청 보도자료 참고)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남성 비만율은 1998년 25.1%에서 '07년 36.2%로 증가하여 2010년도까지 비슷한 추이를 이어가고 있으며, 고혈압 유병율도 성인 남녀 모두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식생활 개선 등이 요구된다.

※ 비만율 : 남자('07년 36.2%, '08년 35.3%, '09년 35.8%, '10년 36.3%), 여자('07년 26.3%, '08년 25.2%, '09년 26.0%, '10년 24.8%)

※ 고혈압 유병율 : 남자('07년 26.9%, '08년 28.1%, '09년 30.4%, '10년 29.3%), 여자('07년 21.8%, '08년 23.9%, '09년 22.2%, '10년 23.9%)

식약청은 외식이 잦은 직장인 등 성인의 경우 현명한 외식 습관을 기르고 술과 카페인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으며,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하였다.

〈현명한 외식 습관〉

외식 시에는 과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 끼 식사량을 넘지 않도록 하고, 외식 메뉴 대부분은 열량이 높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메뉴 주문 시에도 한꺼번에 많이 주문하지 말고 부족하면 추가로 주문하는 습관을 기르고, 외식 때 많이 먹으려고 끼니를 거르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뷔페요리는

과식하기 쉬우므로 먹을 만큼만 덜어먹고 빨리 먹지 않도록 한다.

한식, 양식 등 종류에 따라서도 고열량 식단을 자제하고 균형잡힌 영양소를 섭취하도록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식의 경우 부식 종류가 다양한 영양이 골고루 잘 갖춰진 식사로 채소 위주, 생선구이, 편육 등 기름이 적은 메뉴를 선택한다. 양식의 경우엔 크림스프보다 채소스프, 열량이 낮은 샐러드 소스를 선택하고 빵은 가급적 버터나 잼을 바르지 않고 먹는 것이 좋다. 일식은 열량 높은 튀김류는 피하고, 초밥을 먹는 경우엔 밥 양에 주의해서 먹고 채소반찬과 곁들여 먹도록 한다. 중식은 열량을 줄이도록 우동, 짬뽕과 같이 채소건더기가 많은 음식을 선택하고 열량이 많은 소스는 적게 넣어 먹는 것이 좋다. 또한 비슷한 음식이라도 조리법이나 재료에 따라 열량 차이가 많으므로 고열량식을 피하려면 대체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만두(250g, 685kcal) 보다는 물만두(120g, 157kcal), 짬뽕(1000g, 688kcal) 대신 우동(700g, 422kcal), 참치김밥(250g, 418kcal) 대신 김밥(200g, 318kcal), 비빔냉면(550g, 623kcal) 대신 물냉면(800g, 552kcal), 볶음밥(400g, 773kcal) 대신 비빔밥(500g, 707kcal)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외식 열량을 줄이는 방법이다.

※ 음식별 열량, 무게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1인분 평균값으로 산정

〈술, 카페인 음료는 적당하게〉

술에 함유된 알코올은 1g당 7kcal의 열량을 내어 술을 많이 마시면 열량 섭취가 증가할 뿐 아니라 영양소의 소화 및 흡수를 방해하고 위, 간질환 등 건강상 문제를 일으키므로 과음하지 않도록 건강한

음주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적정 음주량은 표준음주잔을 기준으로 남자는 2~3잔, 여자는 1~2잔이며, 과음 기준은 하루에 5잔 이상, 일주일 기준으로 남자는 13잔(소주 2병 가량), 여자는 6잔이다. 술 한잔의 열량은 맥주(500cc, 185kcal)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막걸리(300mL, 138kcal), 위스키(30mL, 75kcal), 보드카(30mL, 72kcal), 소주(45mL, 63kcal), 적포도주(82mL, 56kcal), 샴페인(50mL, 22kcal) 순이다. 통상 술과 즐겨먹는 대표 안주별 열량은 삼겹살(1인분, 200g) 651kcal, 수육(150g) 150kcal, 모듬회(200g) 246kcal, 과일샐러드(100g) 126kcal, 양념치킨(1조각, 50g) 250kcal이다. 술을 마실 때는 빈속에 마시지 말고 안주와 곁들여 조금씩 천천히 마시고, 술 마신 다음 날은 두통이나 혈당저하를 막기 위해 꿀물이나 식혜, 배즙 등을 먹는 것이 좋다.

적당량의 카페인 섭취는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지만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불면증, 불안감, 심박수 증가, 위산과다 등의 건강상 문제를 일으키므로 성인의 하루 권장량인 400mg 이상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 카페인 함유 커피, 녹차, 초콜릿 등 다양한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데다 최근 소비가 늘고 있는 에너지음료는 고카페인(평균 63mg)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식품별 카페인 함유량 : 믹스커피 69mg, 캔커피 74mg, 녹차(티백 하나 기준) 15mg, 초콜릿 16mg, 커피우유 47mg

카페인 섭취를 조절하려면, 내년부터는 고카페인(0.15mg/ml) 함유 액상제품은 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므로 카페인 함량을 확인 후 구입하고,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거나 홍차나 녹차 티백은 낮은 온도에서 짧게 우려내는 것이 좋다.

〈비만, 고혈압 등 만성질환 예방하는 식습관〉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열량 제한하여 섭취 ▲지나친 당질 섭취 자제(총 열량의 50~60%가 적정) ▲적정량의 단백질 섭취(체중 1kg 당 1~1.5g) ▲비타민 및 무기질 보충 ▲음주량 제한(1회 1~2잔) 등의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고혈압 예방을 위해선 나트륨 섭취를 줄이도록 싱겁게(하루 나트륨 2000mg(소금 5g)이하)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 밖에 ▲육류에 많은 콜레스테롤 및 포화지방의 섭취는 줄이고 식물성 기름이나 생선에 많은 불포화지방산 섭취 ▲단백질과 칼슘 적당량 섭취 ▲해조류, 채소, 과일, 콩에 풍부한 식이섬유와 칼륨의 충분한 섭취가 권장된다.

이상지질혈증인 경우 동맥경화 유발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고열량 식 자제 ▲콜레스테롤 하루 200mg 이하 섭취 ▲고지방식품 섭취 자제 ▲오메가-3 지방산을 하루 2~4g 섭취 ▲식이섬유 하루 10~25g 섭취 ▲탄수화물은 총 열량의 60%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식습관을 갖도록 한다.

※ 이상지질혈증 : 혈중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및 LDL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HDL콜레스테롤은 감소된 상태를 의미하며,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동맥경화 원인 주요 인자로 작용

식약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건강생활을 위한 영양, 식생활 실천가이드 - 청·장년 맞춤형’을 개발하였으며, ▲식습관 평가항목 ▲비만 행동수정 요령 ▲만성질환 별 식단 예시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 임산부 등 각 계층별 맞춤형 가이드라인도 지속적으로 개발해오고 있으며, 자세한 가이드라인 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자료> 홍보물자료실 또는 (www.kfda.go.kr/nutrit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2012 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시상

한우·육우·한돈 최고등급 농가 선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은 지난 11월 22일 ‘2012년도 전국 축산물 품질평가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로 10회를 맞은 이번 평가에서 한우부문 대상(국무총리상)은 김원기씨(인천 강화)가, 우수상(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은 심영수씨(충남 아산)가 받았다. 육우부문 대상은 김항규씨(경북 칠곡), 한돈부문 대상은 김남태씨(제주 한림)가 차지했다.

한우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원기씨는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이 100%로 전국 평균 출현율(48.1%)보다 51.9%포인트 높았고, 육우부문의 김항규씨는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이 38.1%로 전국 평균 출현율(2.1%)보다 36%포인트 높았다. 한돈부문의 김남태씨는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이 전국 평균 출현율(65.5%)에 견줘 24.9%포인트 높은 90.4%를 기록했다.

농민신문 성홍기 기자 2012. 11. 26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미션 및 비전 공유를 위한 기자간담회 개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조규담, 이하 기준원)은 지난 11월 14일(수) 8층 대회의실에서 농·축산 전문지 기자단 30여 명을 대상으로 “원장 취임 100일간의 업무 추진현황 및 미션·비전 공유”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17일 원장 취임 후 100일 ('12.11.24)을 맞이하여 100일간의 업무추진 실적 및 향후 중점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새롭게 설정된 기관의 미션·비전 및 경영목표를 대내외에 효과적으로 확산·전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조규담 원장은 '미션'과 '비전', 향후 5년간 '4대 전략목표'에 대해 직접 프레젠테이션 하는 열정을 보이면서, 기준원의 미션·비전재수립 과정과 기관 경영개선을 위해 기울인 100일간의 노력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조규담 원장은 취임 100일간의 소회를 밝히며 “지난 100일 간 기준원 경영시스템을 개선하고 경영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경영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부분 심혈을 기울였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원 임직원 모두는 상호간 신뢰형성을 통해 앞으로의 업무 추진과 목표달성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기관의 미션·비전 달성이라는 뚜렷한 목표의식을 공유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국민의 밥상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선사하고, 우리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언제나 국민의 편에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최우수 공공기관으로의 도약하도록 모든 임직원은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초등생 1,600여 명 방학교실 운영 지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속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발굴·전개하고 지역 인재 육성, 청년일자리 창출 등 동반성장 활동을 확

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공사는 농어촌 미래인재 성장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희망 School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농어촌 지역 핵심 인력으로 성장할 미래인재인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초등학생들에게는 지금까지 84개 학교 1,600여 명에게 농어촌 아동 방학교실 운영을 지원했으며 중·고등학생에게는 80여 명의 멘토링 지원 학습 지원, 정서 지원 등이 이뤄졌다. 또 우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도 지원됐다. 대학생 네 명에게는 학기당 150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됐다.

또 농어촌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 보육도우미 60여 명을 채용해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7월과 8월에 네 가족 16명에게 친정·외가 방문을 지원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본사와 지사가 1사1촌 자매마을 등 농어촌 일손돕기 활동도 펼치고 있다. 농가 시설안전, PC 점검 등 재능기부와 연계한 일손돕기 활동이다. 또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 키우미'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혈액암협회와 연계해 불우환우 치료비를 후원하고 있다. 임직원이 참여하는 지구촌 씬터 무료급식봉사활동도 지난 6월부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임직원 도서기증 등을 통한 사랑의 책 보내기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 공사는 어린이재단과 연계한 상생·나눔 정례 직거래장터 운영, aT센터 대회의실을 활용한 농업인과 저소득층 결혼식 지원, 사이버거래소를 통한 사회적기업 판매활성화 지원, 화훼공판장

을 활용한 장애우 꽃가게 창업지원 및 꽃사랑 나눔, aT 농식품유통교육원과 연계 특성화고교 교육 지원 및 교류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직거래 장터는 5·24 어린이재단과 매월 2회 진행한다. 장터에서 참가 농업인이 물품을 판매한 금액 중 일부인 2.5%와 공사 구매물품 등을 재단에 기부하고 있다. 농어업인과 저소득층 결혼 지원을 위해서는 aT센터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무료 개방하고 있으며, 합동 결혼식의 경우 꽃장식비 등 부대경비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 사이버거래소 B2C 쇼핑몰에는 우수 사회적기업을 선정해 입점시키고 있다. 판매상품 기획과 홍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 사회적기업에는 B2C 판매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장애우 대상 꽃가게 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화초재배, 꽃꽂이, 꽃장식 등을 배울 수 있는 원예교실을 운영하고, 꽃 판매 및 화훼 유통에 관한 이론·실습 등을 병행해 배울 수 있다. 특성화 고교 교육지원을 위해서는 유통교육 노하우를 특성화 고교에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통분야 전문강사 및 현장 방문 지원, 교육원 유통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 양성된 미래인재는 국내 농수산물 분야에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중앙일보 이정구 객원기자 2012. 11. 21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공판장, 농산물 취급실적 1조 5천억 돌파

전국 12개 농협중앙회 공판장의 농산물 취급실적

이 11월 22일 기준, 최초로 1조 5천억원을 돌파하였다.

민간 도매법인과 치열한 경쟁 속에 농협중앙회 공판장의 공영 도매시장 판매점유비는 25%로 전년 대비 0.7%p 상승하여 도매시장에서 농협의 유통 주도권을 확대하는 등 판매농협 구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협공판장의 매출규모는 국내 과일·채소류 총생산액의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농산물의 국내 최대 판매처 역할과 함께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 값에 팔아주고, 공정하고 투명한 농산물 거래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농산물도매부(부장 권기춘)에서는 올해 △공판장 평가시스템 개선 및 경매사 점유비평가제 도입, △전자거래 및 공판장간 통합 출하유치 확대 등을 전략사업으로 중점 추진하였으며, 8월 정가·수익매매 확대 농안법 개정에 따른 “정가·수익매매 활성화 T/F팀”을 출범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사업구조개편 후속조치에 따른 농협공판장 자회사(NH청과·가칭)의 성공적인 출범 및 4조원 달성을 목표로 △공판 마케팅팀을 신설, 전략사업 확대와 △스마트폰 전자거래가 가능한 앱 개발을 통한 공판장 최초의 유비쿼터스 환경 조성 등을 추진, 농협 공판사업이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